



## 일본 정부, 경기 회복국면 판단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일본 정부의 분석과 각종 지표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.
  - 일본 내각부의 5월 월간경제보고서는 4월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.
    - 2013년 2월부터 일부 부문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4월에는 경제 상황이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었다고 밝힘.
- 2013년 1/4분기 현재 일본경제는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2012년 3/4분기까지 지속된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남.
  -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2년 2/4분기  $-0.2\%$ , 3/4분기  $-0.9\%$ 를 기록하였으나, 4/4분기에는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 $0.1\%$ 로 상승하였고, 2013년 1/4분기  $0.9\%$ 를 기록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됨.
  - 또한, 2013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였던 것으로 나타남.
    - 경제전망기관들은 2013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 $0.7\%$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음.
- 2013년 1/4분기 일본경제는 설비투자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회복세가 나타남.
  -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 $0.9\%$  증가하여 경기회복을 주도하였고, 투자에서는 주택 투자가  $1.9\%$  증가함.
    - 설비투자는 전분기대비  $0.7\%$  감소하였으나 2012년 4/4분기  $1.5\%$ 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줄어들었음.
  - 수출은 미국경제 회복조짐으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분기대비  $3.8\%$  증가하였고 수입은  $1\%$  증가함.

■ 일본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기 회복이 수출 여건 개선, 경제 대책, 금융정책에 따른 경제주체 신뢰 개선에 기인하였다고 분석함.

- 일본 경제보고 관계 각료회의는 증시가 급등하고 엔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소비와 수출이 개선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함.
  - 아베 신조 총리는 2012년 말부터 디플레이션 탈피를 약속하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채권 매입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힘.
  -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5월 20일 현재 지난 6개월간 달러대비 20% 하락하여 달러/엔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였고 닛케이지수는 45% 상승한 1만 5000엔을 넘어섬.
- 블룸버그는 주택 경기와 소비 지출이 크게 개선된 것이 경기회복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함.
  - 2012년 12월~2013년 2월 기간의 주택착공호수는 2012년 9월~2012년 11월 기간에 비해 9.4% 증가함.
  - 2013년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44.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.
-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장기간 디플레이션으로 침체되었던 기업의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지속적인 경기회복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함.

■ 일본 정부는 현재의 회복세는 소비가 견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, 설비투자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이고 2013년 경제성장률이 2.5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
- 2013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2.5%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2013년 2/4분기 부터 0.8%를 상회하여야 함.
- 이를 위해 아마리 일본 경제상은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밝힘.
  - 아직까지 기업들은 공장 등에 대한 생산 설비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임.
- 한편 미국 경제는 건조한 반면, 중국과 유럽 경제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세계 경제 불균형이 일본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.

(일본 내각부, 블룸버그 등)